

흐름에 따라 읽는 에베소서



강사: 김희성 목사

이름:

에베소서 본문 연구

기업의 영광의 풍성함			
2:11-12	2:13-19	2:20-22	3:1-13
‘그리스도 밖’ 에 있을 때의 상태	‘그리스도 안’ 에 있을 때의 상태	건물 비유	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

I. 하나님의 ‘기업’의 영광의 풍성함의 정의

- ‘기업’은 무엇인가?

(엡 1:11)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

-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영광의 풍성함

II.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상태(2:11-12)

1. 표면적(육체적)인 상태

(엡 2:11)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

1) 육체로는 이방인

- 유대인의 관점: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자국민 이외의 타민족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
- 호칭에 담긴 분위기: 이방인은 자신들과 가깝게 지낼 수 없고, 거리가 먼 대상 / 이방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, 무시당하는 대상

2)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무할례자로 불림

- 무할례자: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멸과 적대감

(삿 14:3)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

(요 4:9)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

(갈 2:11-13)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

(행 10:28)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

★ 정리

이방인은 유대인들과 거리가 멀고, 그들로부터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단절되었고, 그들에게 있어서 적대감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.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.

3) 바울의 태도

-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이런 태도를 동조하지 않고,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함: ‘손으로 행한 할례’

cf. 바울이 강조한 할례

(골 2:11)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

(롬 2:28, 29)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**할례는 마음에 할지니**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

2. 근본적(영적)인 상태

(2:12)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

1) 그리스도 밖의 상태

-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,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,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고,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었음

2) 에베소서 본문에서 찾는 그리스도 밖의 상태

(엡 1:3)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**그리스도 안에서**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

(엡 1:20) 그의 능력이 **그리스도 안에서**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

(엡 2:10)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**그리스도 예수 안에서**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

★ 정리

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,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, 하나님의 진노를 부지런히 쌓으며 무서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.

III.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상태(2:13-19)

1. 그리스도의 행하심1: 대속적인 죽음

(엡 2:13)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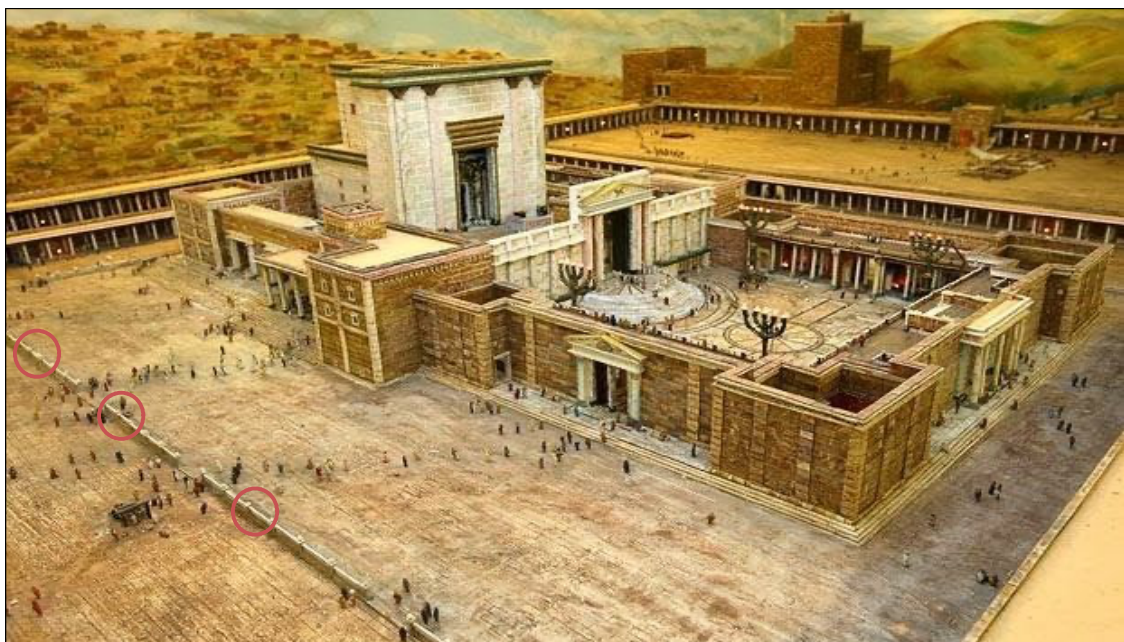
- 그리스도의 피: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됨

2. 그리스도의 행하심2: 하나 되게 하신 것 가운데 나타나는 행하심

1)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

(엡 2:14)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

- 둘: 유대인과 이방인
- 둘 사이의 막힌 담: 헤롯 성전의 담
-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, 확장하여 만든 성전



- 1.5m의 낮은 담: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조롱
- 1871년에 발견된 이방인의 뜰 난간에 붙여 있는 비문

“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. 이를 범해 붙잡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”

- 예수님께서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심: 십자가의 죽음 → 둘 사이의 화평

2) 율법을 폐하심

(엡 2:16)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

- 물리적인 담을 율법과 연결
- 율법1: 유대인들의 특권, 자랑,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표지 → 선민
- 율법2: 이방인을 정죄하고, 판단하는 잣대
- 율법의 행위로써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음: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
-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,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음: 율법의 완성 → 율법은 더 이상 특권이나 자랑이 아님
- 한 새 사람을 만드심 → 유대인은 유대인이기를 중단(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 포기, 선민의식과 우월감 버림), 이방인은 이방인이기를 중단(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방탕한 삶을 포기)

★★ 적용

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, 신분, 지위, 학벌, 성별, 이념 등은 성도님들을 차별하고, 소외시키고, 성도님들 사이를 적대적으로 만드는, 원수가 되게 하는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양보하고, 절제하고, 포기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
3)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

(엡 2:16)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

- 십자가로 소멸시킴: 하나님과 이 둘 사이를 가로막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음 → 수평적 관계 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의 회복

4)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도록 하심

(엡 2:18)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

-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,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, 승천하셨음
- 양자의 영, 곧 성령: 한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

★★ 적용

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

★ 정리

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, 원수된 것을 자신의 육체로 허심으로, 율법의 계명을 폐하심으로,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, 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써 자신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.

3. 신분의 변화(2:19)

(엡 2:19)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

-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, 하나님의 권속(가족) → 모든 신령한 복과 지극히 크신 능력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됨

★ 정리

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. 이 대가는 어느 누구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.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를 수 있는 대가였습니다.

4.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의 영광의 풍성함1

-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: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, 더 풍성한 영광은 없음

IV. 건물 비유(2:20-22)

(엡 2:20)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

1.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

-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: 이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
- 에베소서 3장 1-13절: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자세하게 설명

2. 모퉁잇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

- 모퉁잇돌: 건물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
- 모퉁잇돌에 대한 두 가지 해석: 건물의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 구조물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면서 건물을 지탱하는 돌 / 건물을 완공한 후에 완성의 의미로 건축에서 가장 마지막에 두는 돌
-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의 기초부터 완공까지 가장 중요한 모퉁잇돌!
- 에베소서 2장 13-18절: 어떻게 모퉁잇돌이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줌

3.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감

(엡 2:21)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

- 성전: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,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음
- 되어 감: 진행형 - 완성된 성전이 아닌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
- 되어 감: 수동형 - 우리가 이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심

4.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됨

(엡 2:22)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

- 그리스도 안 = 성령 안

V.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(3:1-13)

1.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

(엡 3:1)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

- 이방인을 위해 갇히게 된 점을 강조: 이방인의 사도라는 점을 말하기 위함

2.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목적

(엡 3:4, 4)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

2021년 세광교회 양육과정_에베소서 3강

-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심
-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: 이전의 본문(엡 1-2장)
- 간단히 기록: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 - 그리스도의 비밀의 정수
- 그리스도의 비밀의 정수 - ‘그리스도 안’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
- 그리스도의 비밀: 그리스도 자체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비밀

(골 1:26, 7)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

★★ 적용

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,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셨습니다. 이 보다 더 큰 비밀은 없습니다. 따라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하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.

(엡 3:6)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

-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

(엡 3:8)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

- 부르신 목적에 따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함: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짐

★ 정리

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이방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어떻게 세움을 입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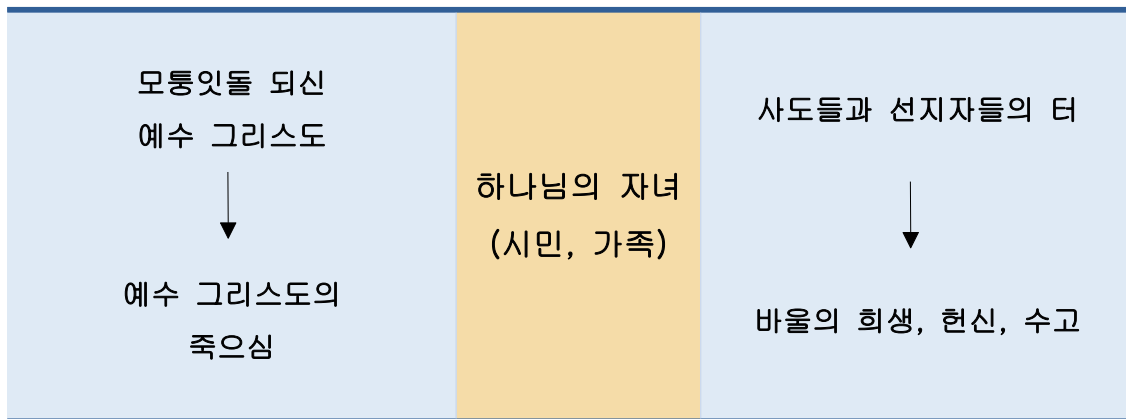
3. 마지막 단락(3:1-13)의 의미

-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?
-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음
-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잘 알고 있음
-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더해줌

4. 하나님의 자녀 됨의 영광이 풍성함2

-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, 헌신, 수고, 인내, 사랑으로 나타남

VI. 하나님의 자녀 됨의 영광의 풍성함



- 이방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
-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영광의 풍성함1: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심 =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
-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영광의 풍성함2: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= 바울의 희생, 헌신, 수고, 인내
-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줌

★★ 적용

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. 우리의 가치와 소중함은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.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,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

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

그리고 내가 존귀한 자녀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, 성도님들 또한 존귀한 자녀들입니다. 이방인에 대해 경멸하고, 무시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